

# 『海東名迹』 목판본 연구\*

Woodblock Edition of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유 지 복 (Yoo, Jibok)\*\*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목판본 판본 분석 |
| 2. 목판본 간행 배경 | 5. 맺음말       |
| 3. 목판본 수록 내용 | <참고문헌>       |

## < 초 록 >

16세기 초에 申公濟에 의해 간행된 『海東名迹』은 신라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명필들의 글씨를 모아놓은 서첩이다. 국내 서예가의 명적으로만 꾸민 集帖으로는 최초의 형태를 이루며, 목판본과 석각본으로 간행되어 현재 다양한 이본이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 목판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전국 10곳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석각본 뒤에 새겨진 발문을 분석하여 『해동명적』이 1515년경에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고, 이후 1530년에 2인의 필적을 첨가하여 석각본으로 다시 간행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해동명적』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여 총 42인 106작품의 출전과 문장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초각본에 가까운 형태 일수록 전집과 후집의 구분이 명확했고, 축약된 형태로 편집되어 몇 명의 글씨가 누락된 경우는 후대에 다시 새긴 복각본임을 밝혔다.

要語: 『海東名迹』, 申公濟, 集帖, 목판본, 석각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1015678).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후연구원(smrjc@hanmail.net)

접수일: 2016년 3월 3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In early sixteenth century, Shin Gongje (申公濟, 1469-1536) published an album that contains calligraphy samples from master calligraphers of late Silla to early Joseon periods titled *Haedong myeongjeok*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海東名迹). This book is the first collected album of various calligraphers containing only Korean calligraphers' masterpieces, and numerous editions are extant today as it was published widely in woodblock or stone-carved forms.

In this study, extant woodblock editions stored in ten locations throughout Korea are examined, and three significant findings are discuss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epilogue at the backside of a stone-carved e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woodblock version of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was first published in around 1515, followed by a stone-carved version supplemented by two notables' calligraphy in 1530. Furthermore, the contents of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are examined to analyze the references and writing styles of a total of 106 works by 42 calligraphers. As well, it is found that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the first part and latter part of editions published soon after the original than those published later, and re-carved editions published later are abridged editions that have omitted several persons' calligraphic works.

Key words: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Haedong myeongjeok*,  
Shin Gongje, collected album of various calligraphers,  
woodblock edition, stone-carved edition

## 1. 머리말

『해동명적』은 申公濟(1469-1536)가 신라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국내 명필들의 글씨를 모아 간행한 서첩이다. 국내 역대 명서가의 필적을 모은 集帖의 형태로는 효시를 이루며 현재 다양한 이본이 남아있다. 현전하는 『해동명적』의 간본은 크게 음각의 석각본과 양각의 목판본 2종류가 있으며, 두 본 모두 대부분 전집과 후집으로 나뉘어 편집되어 있다.

『해동명적』의 가치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70년 당시 한학자이자 서예감식가로 활동하던 고 임창순에 의해서였다.<sup>1)</sup> 그에 힘입어 경주 독락당 소장 석각본이 같은 해에 보물 제52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독락당본이 『해동명적』의 유일한 보물로 남아있다. 그런데 『해동명적』의 다양한 이본이 도처에서 공개되고 있는 지금 독락당본이 완질본은 물론 초간본도 아님을 보여주는 사료와 문헌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동명적』이 처음에 소개될 당시 유일본으로 믿었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과 아울러 『해동명적』의 판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동명적』은 조선 초기 서첩의 간행 양태 및 신라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서예사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 초기의 서첩으로는 유일하게 석각본과 목판본 2종의 간인본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15세기 이전 명필들의 필적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본과 희소성이 높은 필적으로 이루어진 『해동명적』은 서지학 또는 서예사 방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해동명적』에 대한 연구는 크게 版本과 書風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연구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판본에 주목하였고, 석각본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해동명적』의 간행 배경과

1) 任昌淳, “海東名迹 2冊,” 『圖協月報』 11권 12호(1970), 23-24.

수록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판본을 분석하여 초각본 및 선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후속될 석각본과 서풍 연구에 효과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목판본 간행 배경

조선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王羲之나 趙孟頫 등 역대 명적을 모각하여 法帖을 간행하는 사업이 국가의 주도에 의해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법첩이란 역대 명필의 글씨 가운데 모범이 될만한 필적을 나무나 돌에 새겨 그 탁본을 완상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을 말한다. 법첩은 예로부터 글씨 학습을 위한 주요 지침서가 되었으며, 국내의 다양한 서풍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왔다. 중국에서는 법첩의 시원으로 일컬어지는 宋代의 『淳化閣帖』(992년 刊)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첩들이 끊임없이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역대 명적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국내에서도 법첩을 간행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sup>2)</sup> 그 가운데 여러 서가의 필적을 한데 모은 집첩으로는 安平大君 李瑿이 제작한 『匪懈堂集古帖』(1443년 刊)이 국내 법첩의 효시를 이루는데 대부분 왕희지·조맹부 등 중국의 역대 명적을 수록하였다. 16세기 들어서며 중국 명적이 아닌 우리나라 역대 명필의 글씨로만 이루어진 집첩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최초의 형태가 바로 『해동명적』이다. 신라 말에서 조선 16세기 초에 이르는 대표적 서예가 42인의 106작품을 실어 법첩으로서의 가치를 더한 『해동명적』(<표 1> 참조)은 이후 『東國名筆』(석각본, 1664년 刊)과 『大東書法』(목판본, 17세기 중반경 刊)이 간행되는 바탕이 되었다.

2) 조선 초기 법첩 간행과 중국 법첩의 수용에 관해서는 유지복, “明代 法帖의 국내 전래와 수용 양상,” 『藏書閣』 제20집(2008), 145-184.

&lt;표 1&gt; 『海東名迹』 수록 서가 및 작품 수

시기	수록 서가 인명	인명 수	작품 수
[어필]	文宗, 成宗	2	6
신라	崔致遠, 金生, 僧 靈業	3	9
고려	僧 坦然, 李齊賢, 李岳, 申德鄰	4	10
여말선초	李岡, 僧 慧勤, 成石璘, 朴礎, 權近	5	20
조선건국 ~ 16세기 초	河演, 申檣, 無名氏, 崔興孝, 安止, 朴熙中, 高得宗, 朴堧, 成三問, 朴彭年, 安平大君, 成任, 徐居正, 金紐, 洪應, 鄭蘭宗, 李淑斌, 金宗直, 金訢, 權健, 申從濩, 洪貴達, 朴孝元, 曹偉, 韓訓, 任熙載, 朴耕, 金希壽	28	61
합계		42	106

그렇다면 『해동명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제작된 시기는 정확히 언제일 까? 이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중종 때의 문인 魚叔權의 『稗官雜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근래에 判書 申公濟가 우리나라 명인의 필적을 모아 간행하였다. 崔致遠으로부터 이하 모두 약간 명으로, 그 이름을 『해동명적』이라 하였다. 가정 정해년(1527)에 내가 愼自健 공을 뵈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해동명적』에 있는 朴耕의 글씨 한 폭은 내가 쓴 것이다. 신공제 노인이 박경의 자제에게 그 필적을 얻고서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였다. 아, 박경이 죽은 시기는 명적을 모은 시기와 겨우 10여 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게다가 신공제 노인은 안목을 갖춘 자로 이름이 나있는데도 오히려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렇다면 100년도 훨씬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진위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신자건 공은 본래부터 후세에 전할 만한 해법을 갖추고 있건만, 박경의 필적으로 잘못 오인하였으니 그 오류가 심하다.”<sup>3)</sup>

위의 내용에 의거 신공제(1469-1536)가 우리나라 역대 명적을 모아 『해동명적』을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신공제는 고조부 申德隣, 증조부 申檣, 종조부 申叔舟

3) 魚叔權, 『稗官雜記』 권1.

“近世申判書公濟, 聚東國名人筆跡刊行, 自崔致遠以下凡若干人, 名曰海東名跡, 嘉靖丁亥, 余謁愼公自健, 公曰, 海東名跡中, 朴耕書一幅, 余之所寫也, 申老得於朴之子弟, 而不悟其非眞, 噫朴之死, 距名迹之聚, 纔十許年, 申老亦號具眼, 而猶有此失, 則其遠在百年之外者, 安能保其眞贗也, 愼公自有楷法可傳, 而誤認爲朴筆, 則其謬甚矣.”

로 이어진 고령 신씨 가문의 서예적 재질을 타고난 듯 초서와 해서에 능했으며, 처리해야 할 장부가 아무리 책상 위에 가득 쌓여도 붓을 잡고 법첩을 임서하기를 쉬지 않을 정도로 평소 글씨에 정진한 서예가였다.<sup>4)</sup> 그가 『해동명적』을 간행했던 것은 집안 대대로 가전되어 온 서예적 재능과 글씨에 대한 안목이 상당 부분 축적되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어숙권의 위의 글 가운데 『해동명적』이 간행된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朴耕이 죽은 시기는 명적을 모은 시기와 겨우 10여 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경은 서얼 출신으로 글씨를 잘 써 校正廳의 寫手로 있었으며,<sup>5)</sup> 왕의 측근을 제거하고 역모를 꾀한다는 무고를 받아 1507년 참형에 처해졌다.<sup>6)</sup> 따라서 박경이 죽은 지 10년 뒤인 1517년을 전후하여 『해동명적』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해동명적』 석각본 말미에 간행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바로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崔世節(1479-1535)의 발문으로,<sup>7)</sup> 판본 및 간행시기에 관한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예로부터 옛 것을 좋아하는 군자가 여러 명가의 筆法을 모아 후세에 전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니, 『靑李來禽帖』이나 『東書堂集古帖』 등과 같은 법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글씨에 능한 자가 적지 않지만 眞迹이 얼마 되지 않고 모각하여 간행한 필적도 드물어 銀鈎玉素와 같은 글씨가 민멸돼 전함이 없게 되니, 비록 나처럼 용렬한 자라도 항상 개탄해마지 않았다. 호조 판서 申公濟는 어려서부터 선조의 서법을 배워 그 適勤함과 豪邁함이 옛사람에 짝 할만하였다. 일찍이 昌原府使로 있을 때 우리나라의 행서와 초서 여러 글씨를 수집하여 모아 한 책으로 만들고 『海東名迹』이라 이름하고는 나무에 새겨 널리 배포하여 글씨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는 바가 있게 하였다. 그 마음 씀이 옛날에 옛 것을 좋아하는 자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으니, 아, 아름답다. 기축년(1529)에 내가 영남의 관찰사로 있을 때 하루는 고인이 된 옛 친구의 맏아들 金魯가 와서 방문하여 말하기를, “호판께서 간행하신 것은 목판본이라 쉬 닳고 마모되어 원래 모습을 거의 잃어가고 있으니, 공께서 글자를 모각하여

4) 申光漢, 『企齋集』 권2, 「判書申公神道碑銘」.

5) 金駟孫, 『續東文選』 권18, 「題士浩跋朴訥書後」.

6) 『中宗實錄』 권2, 중종 2년(1507) 2월 1일 을해 조.

7) 최세철의 발문이 새겨져있는 석각본은 경주 양동 경주손씨 서백당본, 영주 소수박물관본, 동국대학교 도서관본, 계명대학교 도서관본 등 4본이다.

둘에 새겨 넣어 영원토록 전하게 하시고 또한 朴仁叟와 제 先考의 手迹을 추가 해 넣어 후인들의 법적으로 삼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옹계 여기는 한편, 金侯가 그의 선군의 필적으로 하여금 후세에 민멸되지 않게 하려는 뜻을 가상히 여겼다. 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안동 부사 柳希渚 공에게 부탁해 여러 고을의 석공들을 모으게 해 수개월 걸려 새기는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즉시 都事 安珪 군에게 상세한 교정을 가하게 하니 그 글자의 모양새가 前本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인쇄공에게 명하여 찍어낸 뒤 책상 위에 두고 넘겨보니 우리나라 윗대로부터 내려온 수천 년의 필적이 일목요연하여 마치 성난 사자가 바위를 후벼 파듯,<sup>8)</sup> 목마른 천리마가 샘으로 내달리는 듯하여 참으로 翰苑의 기이한 보배였다. 이 사업의 전말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졸렬한 문장을 무릅쓰고 감히 이와 같이 날과 달을 기록한다. 皇明 嘉靖 기원 9년(1530) 7월 하순에 관찰사 桃源 崔世節 介之가 쓰다.<sup>9)</sup>

위의 내용에 근거해볼 때 3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는 『해동명적』이 처음에 목판에 새겨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석각본이 목판본보다 더 정교하고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왜곡된 판단과 상반되는 것으로, 현존하는 목판본이 초간본의 형태에 더욱 가깝다는 점은 위의 기록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둘째는 간행시기에 관한 것으로, 석각본은 목판본을 모본으로 둘에 다시 새겨 1530년에 간행된 후각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초간본인 목판본의 간행 시기를 신공제가 창원 부사로 있을 때로 지목하고 있음을

8) ‘사자(猊)’는 최세철의 발문에는 도롱뇽이나 큰 물고기를 뜻하는 ‘鰐’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唐代의 명필 徐浩가 병풍에 쓴 글씨를 보고 당시 사람들이 감탄하여, “성난 사자가 바위를 후벼 파듯, 목마른 천리마가 샘으로 내달리는 듯하다[怒猊抉石 渴驥奔泉]”라고 한데서 온 말로, 명필을 칭송할 때 으레 인용되던 문구이므로 이를 바로잡았다.

9) “古之好古君子，集諸家筆法，以傳後世者，不一，如青李來禽·東書堂等帖，可見。吾東方能書者，不爲不多，而眞迹少，摸印亦稀，俾銀鉤玉索，泯滅無傳，雖以余之庸下，亦常慨嘆。申戶曹公濟，自少學先祖書法，其遒勁豪邁，追配古人。會理檜山，裒集東方行草諸書，彙爲一帙，名曰海東名迹，鏤梓廣布，使學書者，有所模範，其用心，與古之好古者，無異，吁美矣哉。歲在己丑，余忝持節嶺南，一日故人之胤金侯魯，來過因言曰，版曹所刊，乃板本，易致頑缺，幾乎失真，願公摸字入石，以壽其傳，又添入朴仁叟及我先考手迹，以爲後人矜式。余聞言，是之，且嘉金侯欲使先君手澤，不泯下界。未久，遂囑永嘉倅柳公希渚，搜集列郡石工，閱數箇月鑽訖，卽命都事安君珪，詳加讎校，其字書體樣，與前本不爽。仍命工印之，置案捲舒，青丘上下數千載筆迹，瞭然在目，正如怒猊抉石，渴驥奔泉，眞翰苑奇寶，不可不誌事功顛末，茲不知文拙，敢記日月云。皇明嘉靖紀元之九載 秋七月下浣，觀察使桃源崔世節介之跋。”

논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신공제가 창원 부사에 임명된 기사는 없으나, 1515년(중종 10) 6월 27일 당시 이미 창원 부사로 재임 중이었으며,<sup>10)</sup> 이듬해인 1516년 9월 21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원 부사로 있던 1515년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이듬해 9월 사이에 『해동명적』 목판본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판본에 따라 수록 작가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김노의 청에 의해 朴彭年(1417-1456)과 金希壽(1475-1527)의 필적을 추가하여 석각본을 간행하였으므로, 목판본에는 박팽년과 김희수의 필적이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목판본의 판목은 아직까지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과거에는 역대 명적이나 선현의 문헌들이 신공제나 최세절의 사례와 같이 주로 각 고을의 지방관에 의해 간행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지방 관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보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아직까지 목판이 발견된 예는 없으며, 이는 석각본의 원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창원에서 처음 간행된 목판본은 이후 여러 곳에서 복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아래의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표 2> 『海東名迹』 책판목록

	義城	昌原	南原
攷事撮要(1576년본)	海東名迹	海東名迹	海東名跡
攷事撮要(1585년본)	海東名迹	海東名迹	海東名跡
古書冊板有處攷(1700년경)	海東名迹	海東名迹	-
古冊板有處攷(1780년경)	海東名迹	海東名迹	-

10) 『中宗實錄』 권22, 10년(1515) 6월 27일 임오 조.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臺諫과 侍從에 임용할 사람이 부족한데 창원 부사 신공제 등은 그 직임을 맡기에 적합한 소양을 갖춘 자이므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를 따지지 말고 대간과 시중에 결원이 생기는 즉시 이들을 추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당시 함께 물망에 올랐던 순창 군수 金淨은 중종의 명이 있던 당시 이미 순창 군수를 맡은 지 거의 1년이 되던 때였다. 이로 볼 때 신공제도 이미 앞선 해에 창원 부사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 이 책판목록은 鄭亨愚, 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版目錄』(保景文化社, 1995)을 참고하여 작성함.

이 목록에 따르면 신공제가 처음 간행했던 창원뿐만 아니라 의성과 남원 등지에서 16세기 후반까지 따로 새긴 목판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18세기 후반까지도 의성과 창원에 이 목판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李文樞(1494-1567)의 『默齋日記』에 의성 현령李大升이 이문건이 보낸 종이와 먹으로 『해동명적』 한 부를 인출해서 보내오고,<sup>12)</sup> 경상 감사의 사위였던 尹穽이 『해동명적』을 가지고 와서 이문건에게 제목을 써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sup>13)</sup> 목판의 공식 보관 장소였던 지방 관아와 그곳의 수장이었던 지방관과의 인적 관계를 통해 목판본이 다량 인출되어 민간에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목판본 수록 내용

『해동명적』은 전집과 후집으로 편집되어 있다. 목판본과 석각본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후집에 朴彭年과 金希壽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다. 2인의 필적이 없는 게 목판본이고 2인의 필적을 추가하여 복각한 것이 석각본이다. 또한 후집 말미에 경상도 관찰사 崔世節의 발문이 있는지의 여부도 또 다른 주요한 기준이 된다. 발문이 있는 것이 나중에 복각한 석각본이다. 전집의 경우에는 목판본과 석각본 모두 文宗부터 無名氏까지 17인의 필적이 똑같이 실려 있는 반면, 후집의 경우 목판본은 崔興孝부터 朴耕까지 23인의 필적이 실려 있고, 석각본은 최흥효부터 김희수까지 25인의 필적이 실려 있다. 따라서 목판본에는 40인이 석각본에는 42인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sup>14)</sup>

12) 國史編纂委員會 編, 『默齋日記』上 嘉靖三十年 辛亥歲(1551) 八月初二日丁巳 조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8), 413.

13) 國史編纂委員會 編, 『默齋日記』下 嘉靖三十七年 戊午歲(1558) 十一月 廿三日丙申 조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8), 347.

14) 경주 독락당 소장 석각본이 학계에 맨 처음 소개될 당시만 해도 후집의 존재 여부를 몰랐고, 수록된 서예가의 필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14번째로 수록된 權近의 오언율시 뒤에 실린 李詹, 鄭道傳, 鄭摠, 閔子復 4인의 시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4인의 시를 이들이 각각 따로 쓴 필적으로 판단했으나, 문헌

전체 106점의 필적은 대부분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자작시문의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개인 문집에 수록된 경우도 상당수 된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시와 송시 등 중국의 시를 글씨의 소재로 많이 차용하던 경향과 달리 국내 작가들의 시문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집첩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특이한 것은 글씨를 쓴 필자들이 서로 유기적인 인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고령 신씨의 申德隣과 손자 申檣, 그 종손별인 申從濩, 고성 이씨의 李岳과 아들 李岡, 洪應과 외고조부 李齊賢, 응서 간인 李岡과 權近, 동문 간인 權近과 鄭道傳, 사제 간인 金宗直과 任熙載 등 혈연과 인척, 교우 또는 사제 간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동명적』에 수록된 내용과 그 출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3> 참조).

<표 3> 『海東名迹』 수록 내용 및 출전

	필자	수록 내용 및 출전
1	文宗 (1414-1452)	1 趙孟頫詩 絶句 칠언절구
		2 韓愈詩 晩雨 칠언절구
2	成宗 (1457-1494)	3 御製 送黃柑詩 칠언절구
		4 오언율시
		5 臺諫에 내린 御書 (『성종실록』 권288, 성종 25년(1494) 3월 11일조)
		6 御製詩 望遠亭 칠언절구
3	崔致遠 (857-908?)	7 자작시 오언절구 秋夜雨中 (『東文選』 권19에 출전)
		8 漢高祖 大風歌 (887년, 光啓 3년 서)
4	金生 (711-?)	9 李白詩 王右軍 오언율시
		10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銘 부분 (954년 건립)
		11 李白詩 送賀賓客歸越 칠언절구
		12 唐 田遊巖山家序
		13 大方廣佛華嚴經句

조사 결과 4인의 시는 이첩의 시와 이에 대한 차운시이고, 『해동명적』의 편집체계와 서풍을 고려할 때 권근이 4인의 시를 모두 쓴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진집 앞부분에 과거 급제를 축하하여 지은 黃石奇, 金普, 柳仁雨, 李岳의 시를 모두 이암이 쓰고, 후집에도 具慶堂詩帖이라는 동일한 시제로 지은 崔興孝, 趙末生, 辛引孫의 시를 최홍효가 모두 쓴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필자		수록 내용 및 출전
5	僧 靈業 (미상)	14	漢高祖 大風歌 (813년, 元和 8년 서)
		15	斷俗寺神行禪師碑銘 부분 (옛 慶南 山淸郡 丹城面 雲里 斷俗寺 소재)
6	僧 坦然 (1070-1159)	16	법어
7	李齊賢 (1287-1367)	17	瀟湘八景詩 (李齊賢, 『益齋亂稿』 권10에 출전)
8	李岳 (1297-1364)	18	奉賀登第詩 칠언절구 4수 <sup>15)</sup>
		22	僧 齊已詩 夏日草堂作
		23	僧 齊已詩 秋夜聽業上人彈琴
		24	蘇軾詩 過密州次韻趙明叔喬禹功
9	申德鄰 (1320-1396?)	25	王勃詩 滕王閣
10	李岡 (1333-1368)	26	자작시 오언율시 (田綠生, 『槿隱逸稿』 권4에 출전 <sup>16)</sup> )
		27	자작시 칠언절구
11	僧 慧勤 (1320-1376)	28	詩題
12	成石璘 (1338-1423)	29	裴迪詩 崔九欲往南山馬上口號與別
		30	自作詩 送張參議都觀登全羅道
13	朴礎 (1367-1454)	31	자작시 칠언절구 2수 <sup>17)</sup>
14	權近 (1352-1409)	33	唐 許渾詩 秋思
		34	唐 薛稷詩 秋日還京陝西十里作
		35	唐 儲光義詩 同王十三維偶然作 2수
		37	자작시 칠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38	자작시 오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權近, 『陽村集』 권5에 출전 <sup>18)</sup> )
		39	李詹作 칠언율시
		40	鄭道傳作 칠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41	鄭道傳作 오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42	鄭摠作 칠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鄭摠, 『復齋集』 上에 출전 <sup>19)</sup> )
		43	鄭摠作 오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鄭摠, 『復齋集』 上에 출전 <sup>20)</sup> )
		44	閔子復作 칠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45	閔子復作 오언율시(李詹시의 차운시)

15) 壽春府院君 李壽山(?-1376)의 아들 李恬(?-1403)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여 檜山 黃石奇, 竹崗 金普, 完山 柳仁雨, 杏村 李岳이 지은 시.

16) 田綠生, 『槿隱逸稿』 권4 附錄 遺事, 『立秋前一日與田郎中同宿』(李岡作).

17) 竹亭 卓愼(1367-1426)과 朴礎의 자작시.

18) 권근의 오언율시는 權近, 『陽村集』 권5, 『次韻李待制賀李內相受賜倭扇』에 실려 있다.

	필자		수록 내용 및 출전
15	河演 (1376-1453)	46	자작시 칠언절구 (河演, 『敬齋集』 권1에 출전 <sup>21)</sup> )
		47	자작시 칠언율시 (河演, 『敬齋集』 권1에 출전 <sup>22)</sup> )
16	申櫓 (1382-1433)	48	칠언절구
		49	南在詩 送人 칠언절구 (南在, 『龜亭遺藁』 上, 「送人」)
17	無名氏	50	右議政 柳觀의 辭職箋에 대한 비답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1425) 7월 9일 조)
18	崔興孝 (1370-1452?)	51	崔興孝作 具慶堂詩帖 <sup>23)</sup>
		52	趙末生作 具慶堂詩帖
		53	辛引孫作 具慶堂詩帖
19	安止 (1377-1464)	54	자작시 칠언율시 (權近在 1401년, 태종 1년 佐命功臣 4등으로 吉昌君에 봉군되었을 때의 하례시)
20	朴熙中 (1364-1446)	55	칠언절구
		56	당시 칠언절구 (唐 李遠, 「黃陵廟詞」)
21	高得宗 (1388-1452)	57	자작시 칠언율시 (세종 12년인 1430년 강원 積山에서 講武할 때 고득종이 지은 시)
22	朴堧 (1378-1458)	58	자작시 칠언율시

- 李待制는 李詹(1345-1405)을 가리키고, 李內相은 자가 仲文으로 당시 密直司知申事로 있던 李穡의 둘째 아들 李種學(1361-1392)을 가리킨다. 권근의 오언율시는 이종학이 禡王으로부터 일본 사신이 바친 부채를 하사받은 것을 축하하여 지은 시에 대한 차운시이다. 바로 앞에 수록된 칠언율시는 권근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으나, 일본 사신이 알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어 오언율시와 더불어 이침의 원운에 차운한 시임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이어지는 鄭道傳, 鄭摠, 閔子復의 시도 모두 이침의 원운에 대한 차운시이다.
- 19) 鄭摠, 『復齋集』 上, 「壽寧宮受朝賀訖 金判官瞻有詩 次韻寫呈李申事種學」
- 20) 鄭摠, 『復齋集』 上, 「日本使人以梅竹畫扇進獻 卽賜知申事李仲文 李待制作詩詠其事 次韻寫呈」
- 21) 河演, 『敬齋集』 권1, 「景泰元年六月十六日 判中樞安純爲修文殿大提學 其子參判崇善 爲寶文閣提學 父子同日而授 搢紳賻詩成軸 次其韻」
- 22) 河演, 『敬齋集』 권1, 「贈集賢殿副提學辛碩祖爲傳犀帶」
- 23) 崔興孝의 「具慶堂詩帖」 시는 바로 뒤의 趙末生, 辛引孫의 시와 동일한 제목으로 지은 權近의 시와 함께 河演, 『敬齋集』 권5, 「具慶堂詩帖」에 실려 있다. 하연의 문집에는 이들의 시 앞에 尹淮가 지은 「具慶堂詩序」가 있어 具慶堂詩帖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예문관 대제학이었던 河演의 두 부모가 80이 넘는 고령에도 모두 살아계심을 축하하여 鄭以桴가 선창한 시에 당시의 명공거유들이 운에 맞춰 28편의 시를 지었다 한다.

	필자		수록 내용 및 출전
23	成三問 (1418-1456)	59	자작頌 松竹雪月頌 (成三問, 『成謹甫集』 권2에 출전)
		60	자작頌 蓮頌 (成三問, 『成謹甫集』 권2에 출전)
		61	자작시 오언절구 題畫 (成三問, 『成謹甫集』 권1에 출전)
24	朴彭年 (1417-1456)	62	王安石詩 古松 칠언율시 (1516년 간행 목판본에는 수록 안 됨)
25	安平大君 (1418-1453)	63	證道譚 간행 서문 (1452년, 문종 2년 9월)
		64	자작시 칠언절구 (성삼문을 위해 써준 시)
		65	題畫詩 6언구
		66	跋文 <sup>24)</sup> (1451년, 문종 1년)
		67	濂溪愛蓮說
		68	書簡 (津寬寺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내용)
		69	趙孟頫詩 칠언절구 3수 <sup>25)</sup>
72	趙孟頫詩 칠언율시 3수 <sup>26)</sup>		
26	成任 (1421-1484)	75	오언율시 2수
27	徐居正 (1420-1488)	77	자작시 오언율시 中秋日寄子固 (徐居正, 『四佳集』 권40에 출전)
		78	칠언율시 2수 (金紐를 생각하며 지은 시)
28	金紐 (1436-1490)	80	칠언율시
		81	칠언절구
		82	오언시
		83	益齋八景詩畫帖 跋文 <sup>27)</sup> (1481년, 성종 12년)
29	洪應 (1428-1492)	84	八景詩跋 <sup>28)</sup>
30	鄭蘭宗 (1433-1489)	85	자작시 오언장편 次監司韻 別曹副正先生赴召還京

24) 金子問으로부터 倭本을 얻은 뒤 쓴 발문.

25) 趙孟頫, 『卽事』, 『次韻剛父卽事』. 나머지 1수는 시제 미상.

26) 趙孟頫, 『溪上』, 『岳鄂王墓』, 『大都紅門外海子上卽事』.

27) 李齊賢(1287-1367)의 八景詩를 얻어 詩畫帖으로 표장한 뒤 쓴 발문.

28) 金紐(1436-1490)가 소장하고 있는 益齋八景詩畫帖에 대한 발문. 익재 이제현은 이 발문을 지은 홍응의 외고조부.

필자		수록 내용 및 출전	
31	李淑臧 (미상)	86	자작시 칠언율시
32	金宗直 (1431-1492)	87	칠언절구 2수 送梁潤甫之京 <sup>29)</sup> (金宗直, 『佔畢齋集』 권6에 출전)
		89	오언장편 題印上人詩軸 <sup>30)</sup> (金宗直, 『佔畢齋集』 권15에 출전)
33	金訥 (1448-1492)	90	자작시 칠언절구 <sup>31)</sup> (金訥, 『顏樂堂集』 권1에 출전)
34	權健 (1458-1501)	91	자작시 칠언절구 餞別詩 2수
35	申從濩 (1456-1497)	93	자작시 칠언절구
36	洪貴達 (1438-1504)	94	자작시 오언율시 2수
37	朴孝元 (미상)	96	자작시 칠언율시
38	曹偉 (1454-1503)	97	자작시 칠언율시
39	韓訓 (?-1504)	98	唐 李玖詩 白衣叟途中吟 칠언절구
40	任熙載 (1472-1504)	99	李胄 <sup>32)</sup> 의 課試 東陵種瓜 (『鐵城聯芳集』 권3 忘軒先生文集에 출전)
41	朴耕 (?-1507)	100	北宋 邵雍 落花吟
		101	南宋 楊廷秀 平泉莊
42	金希壽 (1475-1527)	102	王安石詩 2수 <sup>33)</sup>
		104	白居易詩 2수 <sup>34)</sup>
		106	1520년 관서(歎畧)
			※ 1516년 간행 목판본에 는 수록 안 됨

\* 1530년(중종 25) 간행 석각본에는 경상도 관찰사 崔世節의 간행기 수록됨

29) 金宗直, 『佔畢齋集』 권6, 『和梁司直德富詩軸』에 출전. 梁潤甫는 김종직의 문집에 의거 당시 司直에 있던 梁德富를 지칭.

30) 金宗直, 『佔畢齋集』 권15, 『盧又爲梁僧求詩』에 출전. 盧는 盧瑋를 가리킴.

31) 金訥, 『顏樂堂集』 권1, 『送楊泗川可行之任』에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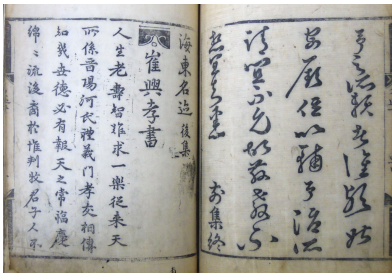
32) 李胄(1468-1504)의 본관은 固城으로, 자는 胄之, 호는 忘軒이다. 좌의정을 지낸 李原의 증손. 이원은 李岡의 아들이자 행촌 李岫의 손자. 이주의 과시는 『鐵城聯芳集』 권3 忘軒先生文集, 『東陵瓜』에 수록되어 있다.

33) 王安石, 오언율시 『送孫子高』, 칠언율시 『次韻奉酬覺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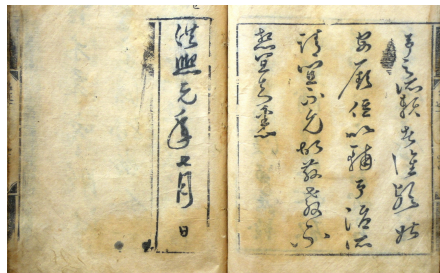
34) 白樂天, 칠언절구 『醉中留別楊六兄弟』, 오언절구 『王昭君』

#### 4. 목판본 판본 분석

현재 각처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명적』 목판본은 모두 10군데가 조사되었다. 이중 가장 완본의 형태를 갖춘 간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성불사 소장본이다. 2본 모두 판심 가운데에 장수를 표기하였다. 고대본은 전집 44장과 후집 34장을 합한 78장, 성불사본은 전집 45장과 후집 34장을 합한 79장이다. 성불사본이 1장 더 많은 이유는 전집 맨 마지막에 실린 무명씨의 필적 끝 부분에 ‘洪熙元年七月日’이라는 간기를 따로 1장 더 새겼기 때문이다(<도 1> 참조).



<도 1-1> 고대본 전집 마지막 장



<도 1-2> 성불사본 전집 마지막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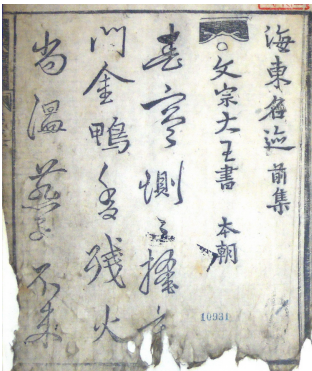
봉화 김태석 소장 전적에 포함되어 있는 목판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1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집은 완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후집이 없는 결본이다.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본은 맨 끝 박경의 필적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간본은 부분적으로 여러 서가의 필적이 빠져있다. 이들 목판본의 수록 필적을 모두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海東名迹』 목판본 수록 필적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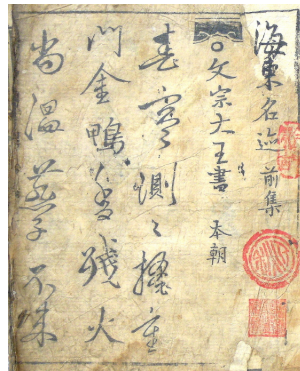
구분	번호	필자	고려대	성불사	단국대	국립	봉화	비클라대	영남대	서강대	서울대	한국학	
			도서관	사	울곡기념	중앙	김태석	동아시아	대	로울라	대	중앙	
			1책 78장	1책 79장	1책 78장	1책 61장	1책 45장	1책 35장	1책 35장	1책 35장	1책 30장	2책 59장	
전 집	1	文宗	○	○	○		○	○	○	○	○	○	
	2	成宗	○	○	○		○	△	△	△	△	△	
	3	崔致遠	○	○	○		○	○	○	○	○	○	
	4	金生	○	○	○		○	○	△	△	△	○	
	5	僧靈業	○	○	○	△	○	△	△	△	△	△	
	6	僧坦然	○	○	○	△	○						
	7	李齊賢	○	○	○	○	○	△	△	△	△	△	
	8	李岳	○	○	○	○	○	△	△	△	△	△	
	9	申德鄰	○	○	○	○	○						
	10	李岡	○	○	○	○	○						
	11	僧慧勤	○	○	○	○	○						
	12	成石璘	○	○	○	○	○						
	14	朴礎	○	○	○	○	○						
		權近 (李詹)	○	○	○	○	○	○	△	△	△	△	△
		(鄭道傳)	○	○	○	○	○	○	○	○	○	○	○
		(鄭摠) (閔子復)	○	○	○	○	○	○	○	○	○	○	○
	15	河演	○	○	○	○	○	○	○	○	○	○	
16	申檣	○	○	○	○	○	○	○	○	○	○		
17	無名氏	○	○	○	○	○	○	△	△	△	△	○	
후 집	18	崔興孝	○	○	○	○						○	
	19	安止	○	○	○	○						○	
	20	朴熙中	○	○	○	○		△	△			○	
	21	高得宗	○	○	○	○		○	○	○	○	○	
	22	朴堧	○	○	○	○		○	○	○	○	○	
	23	成三問	○	○	○	○		○	○	○	○	○	
	24	朴彭年											
	25	匪懈堂	○	○	○	○		△	△	△	△	○	
	26	成任	○	○	○	○						○	
	27	徐居正	○	○	○	○						○	
	28	金紐	○	○	○	○		△	△		△	○	
	29	洪應	○	○	○	○		○	○	○	○	○	
	30	鄭蘭宗	○	○	○	○		○	○	○	○	○	

구분	번호	필자	고려대 도서관	성불사	단국대 울곡기념 도서관	국립 중앙 도서관	봉화 김태석 소장	비블리데 동아시아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서강대 로올라 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
후 집	31	李淑賊	○	○	○	○		○	○	○	○	○
	32	金宗直	○	○	○	○		△		△	△	○
	33	金訐	○	○	○	△						○
	34	權健	○	○	○							○
	35	申從漢	○	○	○							○
	36	洪貴達	○	○	○			△	△			○
	37	朴孝元	○	○	○			○	○	○		○
	38	曹偉	○	○	○			○	○	○		○
	39	韓訓	○	○	○			○	○	○		○
	40	任熙載	○	○	○			○	○	○		○
41	朴耕	○	○	△			○	○	○	△	○	
42	金希壽											

10종의 목판본의 간인 상태를 비교하면 누락된 부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고대본, 성불사본, 단국대본, 국립도서관본, 봉화 김태석본은 전집과 후집을 구분하여 새긴 초간본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의 전집 첫 면을 대표적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첩명인 ‘海東名迹’ 밑에 ‘前集’이라고 새겨 전집과 후집을 구분하였음을 보여준다(<도 2> 참조). 본고에서는 이를 편의상 ‘전후집 초각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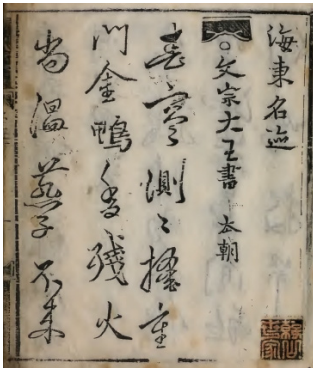


<도 2-1> 고대본 전집 첫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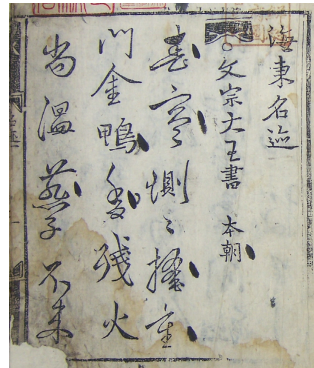


<도 2-2> 성불사본 전집 첫 면

이밖에 버클리대본, 영남대본, 서강대본, 규장각본, 장서각본은 전집과 후집의 구분이 없다. 전집 첫 면의 ‘海東名迹’ 밑에 ‘前集’이 새겨져 있지 않아 전·후집 구분 없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3> 참조). 또한 장서각본의 후집을 제외하고 승 탄연과 신덕린을 비롯하여 누락된 서가의 필적이 거의 동일하고, 이로 인해 앞의 전후집 초각본에 비해 장수도 줄어들었다. 이를 편의상 ‘축약 복각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도 3-1> 버클리대본 전집 첫 면



<도 3-2> 규장각본 전집 첫 면

목판본 10종을 전후집 초각본과 축약 복각본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면 <표 5>와 같다. 이 가운데 장서각본은 복각본의 형태를 띤 전집과 초각본의 형태를 띤 후집과 결합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역대 명필의 필적을 실은 대부분의 목판본은 후대의 소장자들에 의해 원형이 변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출 과정에서 빠트리거나 소장 과정에서 분실하여 그 누락된 부분을 다른 판본으로 찍어 채워 넣거나 오려 붙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장서각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논외로 두기로 한다. 이제 10종의 목판본을 전후집 초각본과 축약 복각본으로 나눠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lt;표 5&gt; 『海東名迹』 목판본 현황

간본 형식	순번	소장처	청구기호	형태	크기(cm)	비고
전후집 초각본 (전후집 구분 有)	1	고려대 중앙도서관	육당 貴 69	선장 1책 78장	32.0×23.3	
	2	성불사	-	선장 1책 79장	33.8×22.2	
	3	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고741.18 해438	선장 1책 78장	33.3×22.7	
	4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82-141	선장 1책 61장	32.7×22.5	일부 결락
	5	봉화 김태석 소장 전적	경북유형문화재 제413호	선장 1책 45장	36.0×24.0	후집 결본
축약 복각본 (전후집 구분 無)	6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6160.3522	선장 1책 35장	31.9×23.0	
	7	영남대 중앙도서관	古 648.3 해동명	절첩장 1책 35장	34.3×23.0	
	8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고서 해2256	선장 1책 35장	32.3×22.3	
	9	서울대 규장각	奎12085	선장 1책 30장	32.8×23.0	
초각·복각 혼합본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C10C 58	선장 2책 59장	30.7×22.2	

#### 4.1 전후집 초각본의 특징

전후집 초각본은 권말, 판심, 세주, 묵등의 표기 방식에서 크게 2종으로 구분된다. 성불사본, 단국대본, 국립도서관본, 봉화 김태석본이 서로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고려대본은 부분적으로 이들과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이에 성불사본을 포함한 4본은 동일하므로 대표적으로 1본을 선택하여 고려대본과 비교하고, 때에 따라 축약 복각본과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 4.1.1 권말 표기 방식

앞서 <도 1>에서 확인했듯이 고려대본과 성불사본의 표기 방식이 다르다. 전집의 권말에는 고려대본에 ‘前集終’이 새겨져 있는 반면 성불사본에는 없다. 그러나 후집의 권말에는 2본 모두 ‘後集終’이 새겨져 있다. 이를 축약 복사본인 버클리대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도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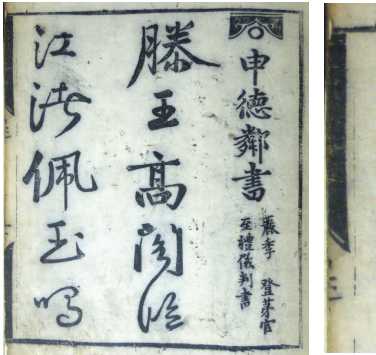


<도 4-1> 고려대본 권말    <도 4-2> 성불사본 권말    <도 4-3> 버클리대본 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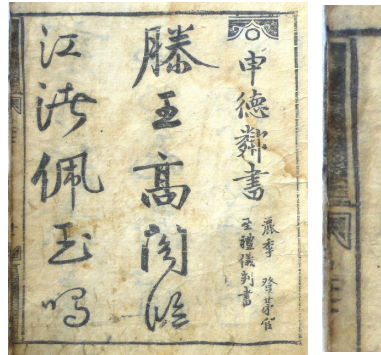
### 4.1.2 판심의 표기 방식

申德隣 필적의 판심에 있는 어미와 후구에서도 고려대본과 성불사본을 포함한 4본에 차이가 나타난다. 고려대본은 후구와 어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성불사본 등 4본은 후구와 어미가 분리되어 있다(<도 5> 참조).

僧 坦然의 이름 바로 위에 새겨진 문양에서도 고려대본이 위쪽 광곽과 떨어져 있는 반면, 성불사본 등 4본은 광곽과 바짝 붙어있다(<도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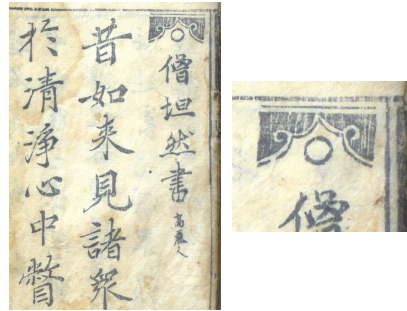
<도 5-1> 고려대본 판심



<도 5-2> 성불사본 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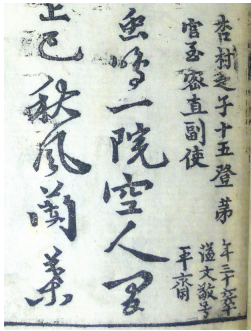
<도 6-1> 고려대본 필자명 위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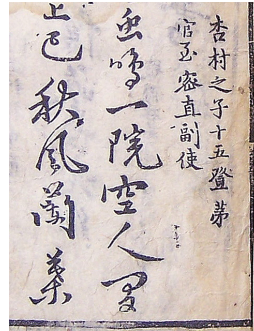
<도 6-2> 성불사본 필자명 위 문양

### 4.1.3 세주 표기 방식

李岡의 이름 아래 새긴 세주 표기에서도 고려대본과 단국대본 등 4본이 다르게 나타난다. 단국대본에는 “杏村之子 十五登第 官至密直副使”라고만 새겨져있는 반면, 고려대본에는 그 밑에 “年三十六卒 諡文敬 號平齋”라는 내용이 첨각되어 있다(<도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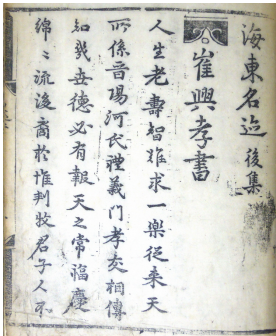
<도 7-1> 고려대본 세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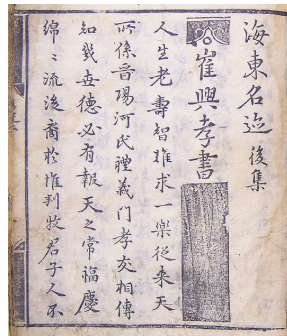
<도 7-2> 단국대본 세주 부분

#### 4.1.4 목등의 유무

목등의 유무 여부도 고려대본과 나머지 단국대본 등 4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 일례로 고려대본에는 崔興孝의 이름 아래 목등이 사라진 반면, 단국대본에는 목등이 그대로 남아있다(<도 8> 참조).



<도 8-1> 고려대본 목등(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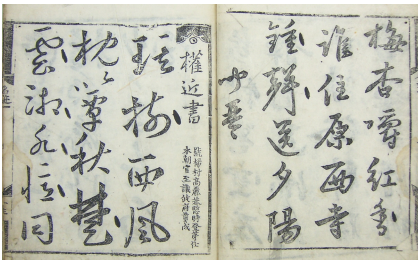
<도 8-2> 단국대본 목등(有)

특히 이 목등은 고려대본과 단국대본 등 4본 모두 전집에는 없으나, 후집에는 성불사본, 단국대본, 국립도서관본에 목등이 있고 고려대본 후집에는 목등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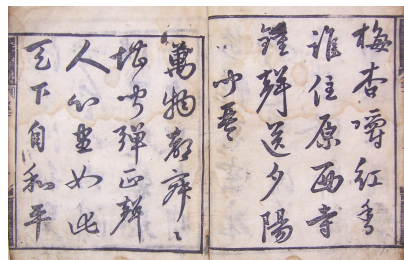
다. 『해동명적』의 편집체계로 볼 때 목판본의 목등은 자, 호, 관직을 간단히 기재하기 위해 남겨놓은 공간으로 판단된다. 전집에 수록된 서가들은 대부분 여말 이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므로 자, 호, 관직 등을 쉽게 새겨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목등이 남아있지 않고, 후집에 수록된 인물들은 대부분 조선 초에 활동했던 인물들이므로 이들의 자와 호와 기타사항을 나중에 기재하기 위해 목등을 남겨놓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목등이 남아있는 성불사본 등이 고려대본보다 비교적 앞선 시기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고려대본은 복각 과정에서 후집의 목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본이 나머지 4분에 비해 글자의 획이 더 굵고 선명하며, 앞서 <도 7>에서 보았듯이 제주 부분에 첨각된 흔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 4.2 축약 복각본의 특징

축약 복각본은 초간본의 형태에 가까운 전후집 초각본에 비해 장수가 35장으로 축약되어 있다. 축약 복각본인 버클리대본, 영남대본, 서강대본, 규장각본이 대부분 서로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과 함께 전후집 초각본을 복각한 사례가 나타난다. 초각본을 축약하여 복각하였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도 9> 참조).



<도 9-1> 서강대본 '聞琴' 부분



<도 9-2> 단국대본 '聞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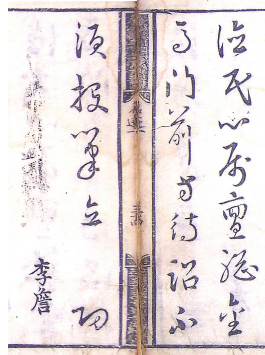
전후집 초각본인 단국대본의 경우 李岳의 필적 ‘聞琴’ 시 다음에 ‘萬物都寂寂’으로 시작되는 시구가 이어지는 반면, 축약 복각본인 서강대본은 ‘聞琴’ 시구가 빠진 채 權近의 글씨로 바로 넘어가고 있다. 이처럼 작품의 시작과 끝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끊어진 경우가 축약 복각본에는 허다하게 나타난다. 이는 판목 35장에 맞춰 무리하게 축약하여 복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4.2.1 판심의 복각 사례

전후집 초각본을 저본으로 삼아 복각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은 초각본 판심의 장수가 드러나는 경우로 아래와 같다(<도 10> 참조).



<도 10-1> 영남대본 제1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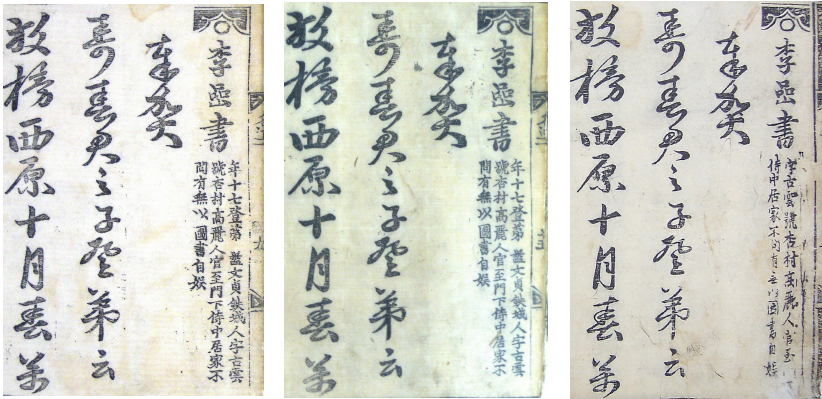


<도 10-2> 단국대본 제34장

축약 번각본인 영남대본 제15장의 판심 중앙에 초각본(단국대본) 제34장의 장수 ‘三十四’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초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후대에 축약하여 복각하는 과정에서 초각본의 장수를 그대로 새기고 미처 지우지 못해 남겨졌음을 의미한다.

## 4.2.2 세주의 복각 사례

35장으로 새긴 축약 복각본은 전후집 초각본 중 고려대본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후각되었다. 李嶽의 세주 부분을 보면 복각본인 영남대본과 초각본인 고려대본이 동일한 반면, 초각본인 국립도서관본을 비롯한 4본과 다르다(<도 11> 참조). 이는 복각본을 제작할 때 비교적 자획이 굵고 선명한 초각본인 고려대본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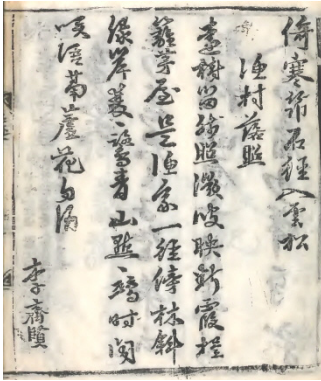
<도 11-1> 영남대본 세주 <도 11-2> 고려대본 세주 <도 11-3> 국립도서관본 세주

## 4.2.3 판본의 상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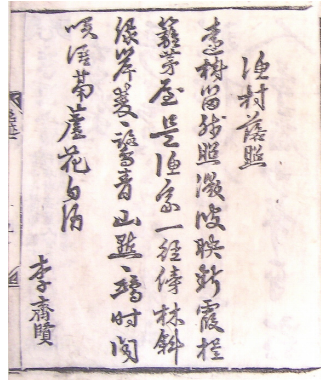
현재 조사된 축약 복각본은 버클리대본, 영남대본, 서강대본, 규장각본 등 모두 4본이다. 이 가운데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은 동일한 판본이고 나머지 2본은 서로 다른 판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 번째 사례로 李齊賢의 글씨가 수록된 제9장은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 규장각본에는 ‘漁村落照’ 앞의 한 줄이 제대로 새겨진 반면, 서강대본에는 새겨져

있지 않다(<도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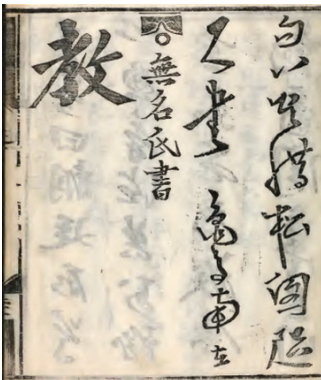


<도 12-1> 버클리대본 李齊賢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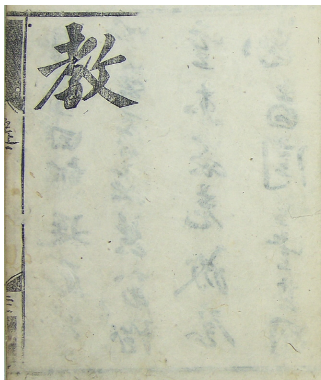


<도 12-2> 서강대본 李齊賢書

두 번째 사례로 無名氏의 글씨가 시작되는 제21장의 앞부분은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 서강대본에는 申樞의 필적 마지막 부분이 새겨진 반면, 규장각본에는 새겨져 있지 않다(<도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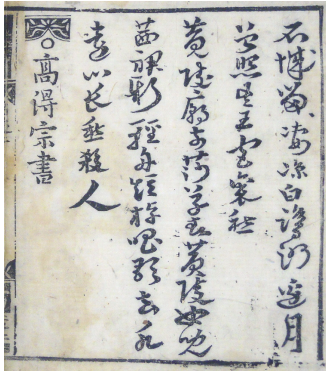


<도 13-1> 버클리대본 무명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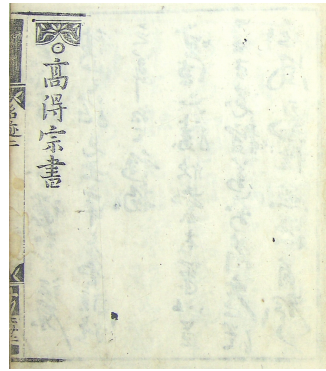


<도 13-2> 규장각본 무명씨서

마지막 사례로 高得宗의 글씨가 시작되는 제22장의 앞부분은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에는 朴熙中의 필적 마지막 부분이 새겨진 반면, 서강대본과 규장각본에는 새겨져 있지 않다(<도 14> 참조).



<도 14-1> 영남대본 高得宗書



<도 14-2> 규장각본 高得宗書

위에 열거한 여러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35장의 판목으로 축약하여 새긴 복각본 가운데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은 동일한 판본으로 새겨진 간본이고, 서강대본과 규장각본은 서로 다른 판본으로 새겨진 간본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35장이 온전하게 찍힌 버클리대본과 영남대본이 축약 복각본 중 가장 선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남대본에는 李淑臧의 필적 뒤에 金宗直의 글씨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앞서 나왔던 權近의 또 다른 필적이 실려 있다. 이것이 전후집 초각본 제29장에 실린 권근의 필적과 동일하고 판심 안의 장수도 ‘二十九’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의 粧帖 과정에서 복각본 제29장의 분실된 부분을 초각본 제29장으로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 5. 맺음말

이 연구는 현존하는 『해동명적』 목판본 10종을 조사하여 간행 배경, 전체 수록 내용 및 출전, 판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동명적』 최초의 간본은 신공제가 창원 부사로 있던 1515년을 전후한 시기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고, 1530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최세철이 이 목판본을 저본으로 2인의 필적을 추가하여 석각본을 복각 간행하였다.

『해동명적』에는 42인 106점의 필적이 실려 있다. 그 중 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작 시문도 60여점이나 되며, 이들 내용 대부분이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 초고로서의 필적의 가치를 높여준다. 또한 목판본에 수록된 필자들이 상당수 혈연과 인척, 교우 또는 사제 간으로 서로 유기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목판본은 크게 전집과 후집의 구분이 명확한 ‘전후집 초각본’과 전후집 구분 없이 축약하여 후대에 복각한 ‘축약 복각본’으로 나뉜다. 전후집 초각본의 경우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로 선후관계가 파악된다. 후집의 필자명 아래 목등이 남아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앞선 간본일 것으로 추정되고, 전집의 필자명 아래 세주에 부분적으로 첨각되어 있는 것은 후대의 간본으로 판단된다. 축약 복각본은 35장의 판목으로 후대에 축약하여 복각한 간본으로, 후집에 목등이 없는 전후집 초각본을 저본으로 삼아 복각한 것이다. 전집의 필자명 아래 세주 판각의 동일성 여부가 그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이 연구는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추후 석각본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석각본 말미 최세철의 발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적 관계망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석각본 제작과 인출 등을 포함한 출판 과정과 당시의 출판문화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東文選』.

『續東文選』.

權近. 『陽村集』.

金訢. 『顏樂堂集』.

金宗直. 『佔畢齋集』.

南在. 『龜亭遺藁』.

李胄. 『鐵城聯芳集』.

徐居正. 『四佳集』.

成三問. 『成謹甫集』.

申光漢. 『企齋集』.

魚叔權. 『稗官雜記』.

李齊賢. 『益齋亂稿』.

田綠生. 『壑隱逸稿』.

鄭摠. 『復齋集』.

河演. 『敬齋集』.

『海東名迹』.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성불사 소장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봉화 김태석 소장 ;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서강대학교 로울라도서관 소장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國史編纂委員會 編. 『默齋日記』(上·下).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8.

유지복. “明代 法帖의 국내 전래와 수용 양상.” 『藏書閣』 제20집(2008). 145-184.

任昌淳. “海東名迹 2冊.” 『圖協月報』 11권 12호(1970). 23-24.

鄭亨愚, 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版目錄』. 保景文化社, 1995.

